베스트셀러에도 '지방자치시대'

호남·영남·충청·제주 등 지역 따라 특색

오늘 6월 27일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화'에 관한 논의와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화'는 곧 정치적 용어 이상의 사회과학적 담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진정한 '지방화'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중앙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책문화'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어느 특정지역에 위치한 서점에서 팔려나가는 책의 순위를 매긴 '베스트셀러 집계'는 지방화의 한 단면을 여과없이 첨예하게 보여준다. 지역별 베스트셀러는 곧 해당지역의 정서와 관심도, 지역주민들의 사회계층별 분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문화현상'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경기지역도 서울과 차이

서울생활권에 속해 있는 수도권 경기지역은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서울 및 기타 지역과는 다른 차이를 보여준다.

제2의 항구도시인 인천 직할시에서 가장 큰 서점인 (주)대한서림의 베스트셀러 집계를 살펴보면 전철 1시간 거리인 서울의 대형서점보다 베스트셀러의 추이가 1, 2개월 정도 늦다.

95년 4월에 들어서면서 서울의 대형서점 소설부문 베스트 순위에서는 자취를 감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여전히 10위권 안에 머물러 있고, 5월 들어서면서 서울에서는 10위권 안에 들기 시작한 《모짜르트가 살아있다면》, 《깊은 숨을 쉴 때마다 -'95현대문학상 수상작품집》이 소설부문 15위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역 베스트셀러 순위의 또다른 특징은 비소설 부문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난다. 서울을 비롯한 광주 전주 대전 등 여타 대도시에 비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꽃삽》 등의 수필류가 의외의 강세를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인천시민 중 책에 관심이 많은 계층들 대부분이 서울로 통근이나 통학을 하면서 서울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여 '잠은 인천에서 자고 문화생활은 서울에서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일신문고와 삼복서점, 전주의 홍지서림 등을 모델로 삼아 살펴본 호남의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책은 상반기 서점가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강준만 교수의 《김대중 죽이기》.

지배권력과 거대언론의 허구와 실체에 대해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모티브로 섬뜩한 비판을 퍼부은 이 책은 출간 직후인 3월부터 광주 일신문고에서는 9주간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전주 홍지서림에서는 8주간 1위를 기록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베스트셀러 순위에는 올랐지만 종합 1위는 하지 못했던 서울지역과 한번도 종합순위 10위권에 들지 못했던 부산 영광도서, 충주 문학사서점, 춘천 청구서적, 강릉 강릉서림, 제주 한라서적 등 다른 지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같은 정치인인 이명박씨의 《신화는 없다》가 각 지역에서 고르게 팔리고 있는 현상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반YS" 바람이 불고 있는 대구 제일서적, 포항 경북서림 등 대구·경북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후보의 각 지역별 득표율과 거의 흡사해, 김대중씨에 대한 호남지역 정서와 관심도를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광주 일신문고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광주지역 베스트셀러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컴퓨터 길잡이》《저는 컴퓨터를 하나도 모르는데요》 등의 컴퓨터 서적이 3, 4월 8번의 종합 베스트셀러집계에서 20위 안에 종종 포함되고 있는 현상과, 허형만의 《풀무치는 무기가 없다》 등의 시집류를 상반기 종합순위 주간집계 20위권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례적인 '시집선호' 현상을 들 수 있다. 4월 마지막주 종합순위 20위 안에 국내소설과 같은 수인 4권이 올랐을 정도.

이같은 현상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향학열과 지적욕구, 흔히 예향(藝鄕)으로 지칭되는 이 지역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 홍지서림의 경우도 다른 지역에 비해 소설 등 문학류가 강세를 보인다.

소설류에서 큰 차이나는 대구·경북 지역

부산 영광도서, 대구 제일서적, 포항 경북서림 등 영남지역 7개 서점의 95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남권 베스트셀러 지형도는 소설분야에서 서울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제일서적의 경우, 소설류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여 5월 집계에서 《고등어》《아우와의 만남》《모짜르트가 살아있다면》《일곱박공의 집》《왕도의 비밀》《느림》《차크와 바르틴》 등 서울지역 서점 소설 순위에서 10위 안에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책들이 모두 빠져 있다. 대신 여타 지역에서는 오래 전에 순위에서 사라진 《모레》《하나코는 없다》《천상의 예언》 등이 소설부문 10위권 안에 포함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 경영 사회과학 수필 등 비소설류에서는 서울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이 지역이 이처럼 소설류에서만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우선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보다는 자연과학 기술과학 경제·경영 분야에 강한 지역이라는 것과 서울과 광주문단에 비해 문학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산 영광도서의 5월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다른 지역과의 차이는 《신화는 없다》(1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3위), 《이런 사원들이 문제 사원들이다》(7위), 《경영파괴》(11위),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14위), 《돈 안드는 마케팅》(18위) 등 경제·경영 관련서들과 기업인이 쓴 책들이 초강세를 보이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은 무역의 중심지인 주변환경과 신발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았던 부산지역이 90년대 들어 극심한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지역 경제인들의 대책 부심이 독서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가지 부산지역의 특징으로는 《컴퓨터 일주일만…》 등의 컴퓨터 서적 및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등 학습 실용서, 그리고 소설 등 문학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외지인이 많이 드나드는 항구도시라는 특징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고 외향적인 지역정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종합 베스트셀러 (1995. 3. 15~5.14)

구분 / 순위	서울 (교보문고 외 3곳)	인천 (대한서림 외 1곳)	강릉·속초 (강릉서점 외 1곳)	대전·충남 (대훈서적 외 2곳)	부산 (영광도서 외 1곳)	광주·전남 (일신문고 외 2곳)	제주 (한라서적)
1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신화는 없다	김대중 죽이기	오름나그네
2	신화는 없다	알칼리 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알칼리수	한라산
3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신화는 없다	퇴마록	신화는 없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알칼리 수
4	알칼리 수	세상의 모든 딸들	고등어	퇴마록	일본은 없다	고등어	4·3은 말한다
5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영원한 것은 없다	일본은 없다II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느림
6	고등어	고등어	블랙커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사원들이 문제 사원들이다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 만큼 한다	고등어
7	깊은 숨을 쉴때마다	성스러운 호소	느림	느림	영원한 것은 없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깊은 숨을 쉴때마다
8	퇴마록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깊은 숨을 쉴때마다	가을의 전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신화는 없다	에로스 타나토스
9	김대중죽이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일본은 있다	깊은 숨을 쉴 때마다	퇴마록	컴퓨터 길잡이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10	느림	페르마타	세월	김대중 죽이기	아리랑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나의 테마는 사람 나의 프로젝트는 세계

주) 본 기사는 전국 26개 서점의 3월 15일부터 2개월간의 베스트셀러 집계를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음.

지방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지역별 베스트셀러는 곧 해당지역의 '문화현상'을 반영한다. 우선 수도권 경기지역은 수필류가 강세를 보이는가 하면 호남지역에선 《김대중죽이기》가 초강세를 띤다. 부산에서는 무역 중심지인 주변환경 때문인지 경제 경영 관련서의 호응이 높다. 충청 지역은 격높은 수필류가, 제주도에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들이 인기다.

대전 대훈서적, 천안 국민도서, 청주 일선문고, 충주 문학사서점 등 충청지역 5개 서점에서는 영화와 함께 출간된 영상소설과 외국작가의 소설, 격높은 비소설류가 독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특히 대전지역이 심해 대전 대훈서적의 4, 5월 베스트셀러 집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가을의 전설》, 《레옹》 등 영상소설이 소설부문 10위권 안에 들어 있고, 이어령씨의 《말속의 말》, 이규호씨의 《에세이 채근담》 등 격높은 수필류가 비소설부문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 외국작가의 소설은 충북지역에서 많이 팔려 로버트 제임스 윌러의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알베르 까뮈의 《최초의 인간》,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콘트라베이스》, 밀란 쿤데라의 《느림》, 시드니 셀던의 《영원한 것은 없다》 니콜슨 베이커의 《페르마타》 등이 충북지역 3개 서점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현지 서점인들은 "타지방에 비해 차분하고 여유있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지역정서가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관심도가 낮아 문화적인 부분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드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강원도 지역은 지리적인 단절로 인해 영동 영서 지방의 차이가 현격한 것이 특징이다. 춘천 청구서적, 원주 동아서관 등 영서지방의 서점들이 서울에 비해 베스트셀러의 변화속도가 다소 느린 것을 제외하곤 큰 특징이 없는 것에 비해 강릉의 강릉서적, 속초 동아서점 등 영동지역 서점은 같은 강원도내 영서지방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춘천 청구서적과 강릉서점의 같은 5월 한달간의 순위를 놓고 보더라도 양쪽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10위 안에 공통으로 오른 책은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와 《깊은 숨을 쉴 때마다》 단 2권 뿐이다.

영동지방에서 손꼽히는 대형서점인 강릉서점 베스트셀러 종합 1위는 뜻밖에도 류시화의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몇달전에 비소설부문에 잠깐 얼굴을 내밀었다 사라진 이 책이 강릉에서 당당히 종합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의 원인은 이 지역 서적상들의 분석처럼 타지역에 비해 책의 구매계층이 나이어린 중고등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동지역은 일반 산업보다는 관광을 위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책을 가깝게 대하는 2, 30대 독자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가장 큰 지역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제주도. 제주시 한라서적타운에서 집계한 종합베스트셀러 1, 2, 4위는 모두 제주도를 소재로 한 책들인 《오름나그네》 《한라산》 《4,3은 말한다》가 나란히 차지했고, 같은 기간 다른 지방에서는 순위에 오르지 못한 시집 《그리운 바다 성산포》 역시 종합 2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특색있는 베스트셀러 순위는 지정학적으로 고립된데다 주민의 대부분이 토박이라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는 데 무리가 없을 듯하다.

올바른 '지방화'는 바로 '지역별 특성화'

"중앙에 거주하는 사람을 일류시민,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을 이류시민으로 분류하는 오류가 벌어질 정도로 심화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지방화를 이룩한다는 말은 곧 각 지역의 특성화를 의미한다"는 한림대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의 말은 각 지방의 특색있는 베스트셀러 지형도의 차이가 중앙과 지방의 문화적인 수준 차이가 아닌 '지역적 특성'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암시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95년 상반기 각 지방의 베스트셀러의 차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구성비율, 지역정서, 환경 등에 따라 각기 특화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것이 비교우열이 아닌 그 지역의 문화이자 특성임을 인정하는 사회를 가능케 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의 약속'인 것이다.

——허 연 기자

출판계 소식

'나남신서' 400호 출판기념회 성황

정진석 교수 《인물한국언론사》로 400호 기록

왼쪽부터 조상호 신계륜 오택섭 최정호 정진석 조용중 손주환 이광재 남재희씨.

나남출판사(대표 조상호)에서 발행하는 나남신서의 400호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가 5월 25일(목) 오후 7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매스미디어와 사회》 《현대사회와 지역언론》을 비롯해 매스커뮤니케이션 전문서적들을 엮어온 나남신서 시리즈는 정진석 교수(한국외국어대)의 《인물한국언론사》로 400호 출간을 맞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만년(일조각) 박맹호(민음) 전병석(문예) 윤형두(범우사) 김경희(지식산업사)씨 등 출판계 인사들과, 오택섭 김인환 염재호 오생근(서울대) 서정훈(숭실대) 이광재(경희대) 이상우(서강대)씨 등 학계 인사들이 참가했다.

한종우 성곡언론재단 이사장, 조용중 ABC 이사장, 손주환 서울신문 사장, 유재천 한국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성낙승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 언론계 인사들과 강인섭 신계륜 국회의원, 한승헌 변호사 등도 참가해 나남신서 400호 출간을 축하했다.

제1회 '국제인쇄출판문화 학술회의' 한·중·일 3국 참가해 열띤 논의

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와 청주 고인쇄박물관(古印刷博物館)이 주관하고 청주시가 주최한 제1회 국제인쇄출판문화 학술회의가 5월 27일(토) 오전 10시 청주 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청주 흥덕사지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直指心體》를 인쇄·출판한 곳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복원해 고인쇄박물관을 세움으로써 세계적인 인쇄문화의 발상지임을 공고히 한 바 있다. 韓中日 세 나라가 참석한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취지는 한국의 금속활자 발명과 인쇄문화의 의의를 정립, 금속활자의 원류를 개관하고 한국·중국·일본의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세계인쇄 출판의 연구와 그 인식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

제1부 발표회는 〈한국의 금속활자인쇄〉(손보기) 〈문명으로서의 인쇄기술과 문화로서의 출판환경〉(箕輪成男) 〈홍덕사 자본 《직지심체》의 인쇄문화사적 의의〉(천혜봉), 제2부 발표회는 〈한국과 중국의 활자인쇄출판문화〉(裘文葆) 〈한국의 인쇄출판문화〉(藤本幸夫) 〈조선시대 민간의 금속활자 인쇄출판〉(윤병태) 〈한국 개화기의 인쇄출판문화〉(이종국) 순으로 진행됐다.

현암법학저작상에 황적인 교수 수상

현암사(대표 조근태)가 "법학교육의 발전과 법률문화 창달"을 위해 제정한 제2회 현암법학저작상 수상자에 황적인(수원대 대학원) 교수를 선정, 27일 금요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황교수의 수상저작물은 《민법》 《경제법론집》 《농업협동조합법》 《농업법개론》 등이며 상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지난 27일 시상식 모습.